

# 수출입은행 부실여신·항만공사 방만경영 질타

**후반기 국감 첫 날...5개 상임위 감사**  
**어린이집 평가인증 통과 2.8% 뿐...임금체불 5년간 163만건**  
**교통위 8일 폭스바겐코리아 사장 증인채택 배출가스 조작 다뤄**

국회는 1일 법제사법위·기획재정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 등 5개 상임위원회에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했다. 오는 8일까지 실시되는 하반기 국감의 첫날이었지만 전반기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정책국감은 실종된 채 정책국감이 되풀이됐고 공천률 등을 둘러싼 여야 내분이 이슈로 부각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 기재위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를 상대로 국감을 열어 수출입은행의 부실여신 문제와 조폐공사의 방만 경영 문제 등을 따졌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수출입은행이 대규모 부실에도 불구하고 2013

년과 2014년 각각 597억원과 66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는데 이는 대손충당금 적립이 아닌 당기순이익에서 차감이 되지 않는 대손준비금 적립으로 대체하고 정부 등 출자기관에 대한 무배당으로 실현된 것에 불과하다”며 “2년 동안 분식회계나 다름없는 방법으로 12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낸 것처럼 꾸며 대규모 손실을 감춰왔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위의 한국보육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어린이집 운영현

황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다문화 아동 보육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확보도 되지 않은 채 외부 기금으로 운영된다 보니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소외된 사각지대에 처한 다문화 아동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남인순 의원은 “평가인증 통과한 전국 어린이집 654곳을 대상으로 불시점검을 한 결과, 인증 유효기간 연장 기준인 95점 이상을 기록한 곳은 3.8%인 25개소에 그쳤다”며 “평가인증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지방고용노동청에 대한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현안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새정치연합 이인영 의원은 “각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된 임금체불 위반 건수가 최근 5년간(2010~2014) 총 163만 건에 달한다”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최병홍 의원은 “건설업 임금

체불 근로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거듭했다. 같은 당 이자스민 의원은 외국의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2013년 281억 원 2014년 339억 원에서 올해는 8월까지 302억 원이나 돼 역대 최대규모라며 체불 사업주에 제재 강화를 주장했다.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열린 법사위의 서울고검, 서울중앙지검 등을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위의 마약사건과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사건, 최경환 경제부총리 측근과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의 취업정찰 사건 등이 쟁점이 됐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부산·여수 등 4개 항만공사의 방만경영 문제 등이 쟁점이 됐다. 한편,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는 8일 열리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요하네스 터머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장과 토머스 쿨 폭스바겐그룹의 디젤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사태를 다룰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국감 현장

### “檢 김무성 사위 외 DNA 확인하고도 수사 안해”

**임내현 새정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일 서울고검 및 산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 이모(38)씨의 마약 투약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쟁점이 됐다. 고검장 출신인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검찰에서 이씨 외에 다른 인물의 DNA를 확인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알렸다. 대검 마약과장을 지냈던 임 의원은 “작년 11월 검찰이 이씨 자택에서 압수한 17개의 주사기 중 9개에서 이씨의 DNA가 검출됐지만 검찰 기소 내용에는 상당수가 빠져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검찰이 확보한 마약 투약용 주사기 17개 중 3개에서는 이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다. 하지만, 검찰은 이씨의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 이씨 본인이 6차례에 걸쳐 코카인 0.2g과 필로폰 0.3g을 주사한 사실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고 임 의원은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임 의원은 이어 “이씨의 판결문 속 공소사실에 주사기로 코카인이나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적시된 내용은 압수수색 시점과 1년 반 이상 떨어져 있거나 자택이 아닌 차량이 투약 장소인 사안”이라며 “공소사실에 빠졌다면 축소수사 아니냐”고 따졌다.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박민표 검사장은 “이씨는 검찰이 직접 체포해 구속한 사안이며 1차 기소를 했다가 주거지 압수수색 후 2차 기소까지 했던 사안”이라고 답변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씨의 공범 수사와 처벌수위를 문제삼았다. 서 의원은 “앞선 법무부 국감에서 검찰은 이씨의 공범인 유명 병원장 아들인 노모씨와 CF 감독 배모씨가 마약 전과가 없다고 말했지만 이들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사실이 판결문으로 확인됐다”며 “국회를 기만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경기자 jkpark@

### “반기문 대권후보로 충분”

**홍문종 새누리 의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후보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당청 갈등이 청와대와 진박계가 여론의 유력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김무성 대표를 흔들려는 의도가 깔린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진박 핵심 인사가 ‘반기문 대선후보’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1일 부산시 해운대 한화리조트에서 열린 광주시의회 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이 강의를 마친 뒤 시의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 김부겸 “전현직 대표 열세지역 출마해야”

**광주시의회 의원 연찬회**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전 의원은 1일 “혁신위원회의 ‘전현직 대표 열세지역 출마’ 제안은 사실상 백의종군론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부산에서 열린 광주시의회 의원 연찬회 특강에서 “지금 전현직 대표들이 무척 섬세하고 억울할 것이지만, 그들에게 기대하는 게 바로 애당심”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여기에 우리 당원들이 마지막 일말의 희망을 걸어보고 있다”면서 “이는 총무공 이순신의 리더십을 요청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혁신위안에 대해 “방법이 서툴렀지만 ‘당대표들에게 이 위기 국면에 이순신이 돼 출전에 주심사’하고 부탁드리는 것”이라며 “자신의 정치 생명을 던져 당을 살려줄 영웅을 찾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현 야권의 상황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자기 이념 실현을 더 중요하다고 보는 성향 때문에 바로 오른쪽에 있는 이들을 정반대에 있는 이들과 혼동하고 있다”며 “같은 대안정당론을 얘기해도 자신들이 하는 것은 괜찮지만 다른 이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변질을 의심하고 타협을 격정하고 배신의 기미를 비난한다. 그런 결정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념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 /최영일기자 cki@kwangju.co.kr

## 국감 인물

### “국가곡물조달 시스템 붕괴” 식량안보 지적

### 한중FTA 협정문 불법조업 근절책 주문 호평

**김승남 새정치 의원**  
 조선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만만치 않은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식량안보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타하고 생산자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의 법제화가 미뤄지고 최근 마련한 ‘조기 경보 단계별 대응 방안’도 모두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고 질타한데 이어 식량자급목표치 포기, 국가곡물조달 시스템 붕괴를 잇달아 지적, 농식품부 관계자들의 진땀을 흘리게 했다. 김 의원은 이어 농산물 재해보험 무사고 환급제, 시장도매인제, 무역이등공유제, 송아지생산안전제 등 다양한 제안을 내놓아 생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 제안이라는 호평을 받았다. 11일 해양수산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김 의원은 한중 FTA 협정문에 중국 불법조업 근절책이 빠져 있다는 점을 밝



히고 중국에서 수출되는 수산물에 대해 합법적 어획물이라는 근거를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마련을 주문, 적절한 지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여계에 독성 유해물질이 한 해 2억5천톤 이상 해상을 통해 이동하지만 정부 부처 단 한 곳도 사고를 대비하지 않고 있다며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농어촌공사 국감에서는 대규모 간척지 조성사업을 위한 담수호의 70%가 농업용수로 사용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한데 이어 임직원들의 부정, 인사 비리, 예산 낭비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 관계자들의 고개를 들지 못하게 했다. 국회 농해수위 관계자는 “조선 국회 의원이지만 농해수 분야의 전문성은 물론 정부 정책의 허점을 짚어내는 내공이 만만치 않다”며 “돌보이는 활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

**담보대출**

APT, 주택, 상가, 대지

보증서 담보 대출(햇살론)

임대보증금 대출

감정가 대비 70% 가능

최대 2,000만원 가능

보증금 대비 최대 80% 가능

**신용대출**

최대 5,000만원 까지 (담보대출 보유시 우대금리 적용)

※ 당사가 정하고 있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체크키 설치 및 유지 보수 관리(결제계좌 변경시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 건수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지원 가능

**본점**

062)525-2770~2

(용봉동 현대자동차서비스 옆)

**용주점**

062)525-2774

(용봉동 주민센터 앞)

**삼각점**

062)525-2776

(삼각동 고려고등학교 옆)

**빛고을새마을금고**